

디다

빵집 주인



줄거리

여기는 할렐 마을.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닿지 않는다.

그래서 밤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찍 잠에 든다.

산속에 깊은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은 옛날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마을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30년 전, 이 마을의 모습은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점차 의심과 불신에 빠져들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그림자 찾기」 제도이다.

「그림자 찾기」를 통해 토론으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름달 빛이 마을을 비추는 어느 날 밤.

할렐 마을 촌장 로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의 아들인 레이드가 용의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았다.

할렐 마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참가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지금, 「그림자 찾기」가 시작되었다.

등장인물 정보

「그림자 찾기」 참가자

애쉬(32): 마을에서 대장장이를 하는 남성.

디다의 아버지인 잭과 절친한 친구였다. 호프라는 애완견과 살고 있다.

버니(30): 마을의 사서를 하는 여성. 마을의 추방자 벨과는 사이가 좋았다.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현재도 그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찰드(38): 마을의 과학자. 이 마을에서 추방 당한 벨의 전 남편.

원래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고, 도시 리바에서 온 것 같다.

디다(19): 잭과 제니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현재는 빵집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전 「그림자 찾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엘리자에 의해 처형되었다. 부모님이 사라진 이후로는 우울해 보인다.

엘리자(28): 촌장 로지와 그의 아들 레이드를 모시는 여성.

원래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고, 도시 리바의 고아원에서 로지가 데려온 것 같다.

냉철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그림자 찾기」의 규칙을 준수한다.

이전 「그림자 찾기」에서는 디다의 부모인 잭과 제니스를 처형했다.

포드(?): 이 마을에서는 보지 못한 얼굴이다.

레이드(36): 촌장 로지의 아들이며,

그를 보좌하고 있다. 이전 「그림자 찾기」의 진행자이기도 했다.

인물 정보

참가자 외의 인물

로지(57): 30년 전에 취임한 할렐마을의 촌장.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며 전 촌장의 측근이었다.

이멜다: 로지의 전 아내이며, 30년 전 사건에서 목숨을 잃었다.
과학에 관해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잭: 디다의 아버지. 「자유의 보옥」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이전 「그림자 찾기」에서 엘리자에 의해 처형되었다.

제니스: 디다의 어머니. 「자유의 보옥」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이전 「그림자 찾기」에서 엘리자에 의해 처형되었다.

벨: 찰드의 전 아내. 외부인과 정보를 교환한 죄로 「그림자 찾기」를 통해
할렐마을에서 추방되었다.

당신의 과거 [그 문 너머에]

여느 때와 같은 아침입니다. 엄마가 만든 아침밥 냄새에 눈을 뜬 나는 주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베이컨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또 베이컨을 사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렇지 뭐!」라고 가볍게 놀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신의 털링대는 모습이 웃긴 건지 계속 웃었습니다. 호프도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그는 아빠가 1년 전에 데려온 강아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호프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이름이죠. 하지만 정작 호프는 이름 지어준 사람의 마음도 모른 채 항상 즐겁게 놀고 있어요. 조금 털링대는 녀석이지만 내가 힘들 때는 항상 곁에 있어 주는 아이예요.

아빠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셔서 내가 항상 깨우러 갑니다. 평소엔 수다스러운 아빠지만 아침에는 저혈압 때문에 기분이 안 좋네요. 내가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하면 「알았어.」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엄마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으면 늦게 온 아빠가 합류합니다. 아직 졸린 건지 손으로 눈을 비비고 계세요. 묵묵히 먹기만 하는 아빠지만 「오늘도 맛있었어.」라고 꼭 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부끄러운 듯 「고마워요.」라고 웃으세요.

나는 그런 아빠와 엄마가 정말 좋아요. 물론 호프도요.

「그리고 보니 말이야, 엘리자 씨에게 말이야. 내 언니가 되어달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아빠와 엄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엘리자 언니를 좋아해 주시는 것이 정말 기뻐요. 그래서 언니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했어요.

「있잖아, 이번에 우리 넷이서 소풍 가자. 언니와의 『비밀 장소』가 있거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며 두 분께 웃어 보일 때, 갑자기 아빠와 엄마의 얼굴에서 표정이 굳었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의 미소가 거짓말인 것처럼. 「아빠, 엄마, 왜 그래?」

당신의 과거

나는 침울한 목소리로 두 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을 보니 현관문 쪽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내가 외치자, 아빠는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대답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돌아보시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미소 지으셨어요. 밝은 눈부실 정도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점점 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기다려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외쳤지만 주변이 어둠에 싸여갑니다. 나는 달려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을 진정시키자 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또 이 꿈이구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의 꿈. 그리고 내가 엘리자를 「언니」라고 부르던 때의 꿈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10년 전의 일. 내 아빠와 엄마는 엘리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때의 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의 상징이었던

「자유의 보옥」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촌장 로지 씨의 아들인 레이드 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그림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찾기」는 마을 사람들끼리 논의하여 사건의 범인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진실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유의 보옥」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용의자로 선택되었어요.

어제 밤, 아빠와 엄마는 평소와 같이 외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두 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호프와 함께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걱정되어서 엘리자 언니... 아니 엘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의 과거

광장에서 「정면 계단」을 올라가면 그곳에는 엘리자나 촌장 로지 씨, 그리고 레이드 씨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 장소는 햇살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집 뒤편에 있는 이 장소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장소를 「비밀의 장소」라고 불렀어요. 엘리자는 이 장소에서 자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자를 만나러 갔어요. 나는 엘리자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언니. 아빠랑 엄마가 외출하셔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나는 불안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디다. 분명 밤이 되면 돌아오실 거야.」

엘리자는 나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마음은 맑게 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겠지! 고마워, 언니.」

나는 안도하며 엘리자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그녀를 위한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토끼풀을 눌러 만든 책갈피를 꺼냈습니다.

「언니를 위해 만들어왔어.」

내가 부끄러워하며 책갈피를 건네자, 엘리자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약간 모양이 흐트러진 작품이었기에,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이만.」

나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밤이 되어도 엄마와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어제 내게 그림책으로 보여주셨던 불꽃놀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모든 마을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셨어요. 분명 아름다웠겠죠.

나는 두 분이 돌아오지 않아 불안했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한낮이 되어 있었고 호프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당신의 과거

나는 두 분이 돌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애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뛰어온 건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호프도 애쉬 아저씨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풀이 죽어 있고 꼬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서두르시고.」

애쉬 아저씨의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엄마랑 아빠 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묻자 애쉬 아저씨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디다... 미안해... 내가... 내가 막았더라면...」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마음에 무겁게 올립니다.

그때부터 애쉬 아저씨는 아빠와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림자 찾기」의 범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애쉬 아저씨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라고 계속하려다가 애쉬 아저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엘리자를 만나러 갈게...」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잠깐, 디다! 네 부모님은 엘리자에게...」

애쉬 아저씨는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웬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광장의 계단을 뛰어올라 「비밀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기에 엘리자는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자의 얼굴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소 지어도 그녀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엄마랑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엘리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분명 엄마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과거

하지만 엘리자의 대답은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 내가 두 분을 처형시켰어.」

「처형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처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좋지 않은 일을 의미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엘리자는 내 질문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아. 영원히.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죽었어.」

엘리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얼굴은 내가 알고 있던 상냥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 사실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언니...어째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엘리자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와 아빠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아빠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목 안쪽이 웬지 무척 말라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정의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들은 『그림자 찾기』의 규칙을 어겼어. 그래서 처형될 운명이었던 거야.」

엘리자는 기계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준 토끼풀 책갈피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마치 나에게 보여주려는 듯이 발로 밟았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엘리자는 이제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는지도 몰라요.

「언니는... 이제 언니가 아니에요...」

나는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과거

그렇게 말하고 나는 엘리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마음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나는 애쉬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가게를 이어받아 빵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프는 애쉬 아저씨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애쉬 아저씨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해요. 나 혼자 키우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빠다운 생각이네요.

지금도 호프의 성장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애쉬 아저씨의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호프는 애쉬 아저씨와 많이 친해져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엄마도 아빠도, 너무나 사랑했던 하지만 지금은 증오하는 엘리자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두 분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꿈을 꾴요. 엄마와 아빠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문 너머로 함께 갔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집에서요.

